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백 성 욱	학번	
이메일	hermesbsw@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국가) 미국
기 간	2017	[귀국일: 2017년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월 8 일

신 청 인 : 백 성 욱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 학교 등)

○ 미주리 주는 미국의 중부에 위치한 24 번째 주이며, 면적은 180000km² 로 한반도(220000km²)보다 약간 작은 크기에 인구는 560 만명(2011 년 추계)이 거주. 인구 절반이 2 대 도시인 St. Louis 와 Kansas City 에 몰려 살고 있어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낮은 편

○ 미주리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의 Main Campus 가 위치해 있는 Columbia City 는 미주리 주에서 5 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약 12 萬명 정도. 인구 상당수가 대학생 또는 대학에 종사하는 관계자이거나 대학 부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대표적인 대학도시. 미주리 주 중앙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고, 미주리 주 主都인 Jefferson City 에서 북쪽으로 약 30 마일, 미주리 주 兩大 도시인 St. Louis 와 Kansas City 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

○ 1818 년 최초로 도시가 형성되어, 미국 중서부에서는 꽤 오래된 도시이며, 1839 년 미주리 대학교가 설립되어 학원도시로 재탄생. St. Louis 와 Kansas City 를 연결하는 Inter-State Highway70 이 市 중앙을 관통하며, 그레이하운드와 메가버스도 이곳에 정차. 지역공항이 있으며, 시카고, 덴버, 댈러스 등 미국내 다른 대도시들과 연계 항공편을 운행중. 컬럼비아에 연수오는 연수생들은 대부분 댈러스 공항에서 환승해 컬럼비아로 오는 항공편을 이용

○ 컬럼비아 날씨는 여름에는 섭씨 30 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많고,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영하 10 도 정도로 떨어지는 날도 있는 등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나, 한국의 여름과 비교해 습도는 낮은 편이고, 최근 2 년 정도는 겨울에 큰 추위가 없어 현지인들도 이상기후라고 느낄 정도

○ 컬럼비아는 미국에서 살기 좋은 중소도시 10 위안에 자주 선정될 정도로 조용하면서도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미주리 주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도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높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좋은 지역

○ 초, 중, 고 교육시스템도 여타 미국 도시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수준이 높고, 인구구성상 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 아이비리그 등 미국내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 최근 중고등학교 시스템이 중학교 2 년, 고등학교 4 년제로 변경

2. GMP 2 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미주리 주립대학교는 KDI School 과 연계아래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비학위 과정으로 Asian Affairs Center 에서 운영중인 Global Leadership Program 에 참여

o Global Leadership Program 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함께 미국정치, 행정, 사회, 경제 등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으로 구성. 한 학급은 최대 10 명의 학생들로 편성되며 한국,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로 구성

o 과정은 봄, 가을 두 학기로 운영되며 각 학기는 두 Session(각 7~10 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

o 매 Session 당 4 과목씩 수강한 후 성적을 평가하며, 마지막 학기에는 전체 학생들과 Asian Center Staff 들 앞에서 15 분 분량으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수료요건을 만족. 수강신청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며, 선착순이 원칙

o 수업은 주로 토론식으로 진행되며, 수업 참여자들은 최근 미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미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 대부분. 이외에도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매일 수업 시작전에 30 분간 신문 칼럼이나 기사를 읽고 토론하는 Morning Talk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심도있는 영어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표출

o 또한, 미주리 주립대학교와 연계아래 미국 현지인과 1:1 Conversation Partnership Program 운영, 영어발음 교정을 위한 주 1 회 Accent Modification 수업진행 등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

o 특히, 대학교 측에서 동북아 국제정세, 탈북자 인권문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격주로 Seminar 와 Conference 등을 개최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하고 있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 함양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

o 매주 금요일에는 미주리 지역내 주요 회사, 농장, 공공기관, 역사유적지 등을 방문해 살아있는 미국 현지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기에 좋은 여건

3. 연수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o 학교에서는 연수생들에게 언어능력 향상은 물론 미국문화, 최근 이슈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중

o 따라서, 이들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 현지인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결국 연수생 개인의 의지와 생각이 연수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를 결정

o 정착 초기에는 제한된 영어소통 능력과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주눅들기 쉬운데, 오히려 시행착오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을 활용할 경우 적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

o 또한, Asian Center 의 Global Leadership Program 은 여타 대학의 다른 비학위 프로그램과 비교해서도 내용과 운영면에서 알차고 짜임새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단기간 내에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4. 주거여건, 음식, 기타활동 및 전반적인 2 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o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이 오지 못해서 1 년간 한국인 가정에서 Home stay 로 생활. 매일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사람을 보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향수병을 달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또한 집을 임차할 경우 귀국할 때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Cancel 요구를 해야 하고, 집 청소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귀국준비가 한결 수월해지는 장점도 존재

o 1 년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미국음식에 대한 적응문제. 점심식사의 경우 많은 경우 수업 등의 이유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음식 대부분이 너무 짜고, 달아서 평균적인 한국인 입맛에는 맞지 않는 것이 현실. 특히 미국의 중서부 지역은 정통 미국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라 특히 음식에 적응하기가 힘든 실정. 따라서 외식을 할 경우도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음식점을 찾는 상황

o 다만,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일반 육류의 경우는 한국과 비교해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많은 한국사람들이 고기음식을 즐겨 먹는 편이며, 미국생활 하는 동안 좋은 품질의 소고기 등을 많이 먹으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

o 연수생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결국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봄. 초기 영어소통의 불편함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간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지 영어 때문에 의기소침해져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주저한다면 결국 개인적인 손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

5. 비자, 출입국 등에 대한 정보

o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이민정책은 물론 출입국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 특히, 중동 7 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현실화되고,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가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최근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작년에 비해 평균 1 시간~1 시간 30 분 정도 더 소요된다고 전언

o 또한 현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현지 교민들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 따라서, 미국연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자 신청에 대비한 서류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은 물론, 대사관 인터뷰를 예상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출입국 직원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해 사전 답변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 아울러, 현지에서 연수를 하는 도중 캐나다나 남미 등 외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에는 여권은 물론 DS2019, I20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챙기고, 여행 출발 전에 서류를 발행한 학교 담당부서에서 서명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미국 재입국 시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일부 연수생의 경우에는 캐나다 여행시 동반가족의 서류를 챙겨가지 않았다가 재입국시 문제가 발생하여 부인이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 따라서 미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서류를 반드시 챙길 것을 당부함.

